

한 생각 바꾸면 새로운 삶 열리네



성태웅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④ 보살국요괴를 물리치는 손오공

저팔계와 격장지계(激將之計)가 성공한 것인가? 단지 그것만은 아니로다.

손오공 마음에 선근 뿌리를 내렸으니 여찌 쉽게 구도의 길을 땡개질까.

한번 스승은 영원한 아버지라(一日爲師終身爲父). 스승의 위기를 구하려 급히 달려온다. 황포 요괴는 아직도 궁궐에서 술에 취해 있고, 사오정은 요괴 소굴에 잡혀 있구나.

손오공 우선 요괴 소굴에 들러 사오정 구하고 요괴 부인노릇하고 있는 공주 달래어 요괴의 자식들로 궁궐에 있는 요괴를 끌어낸다.

(잔인한 장면, 심의 삭제) 놀랜 요괴 바람처럼 소굴로 달려오고, 손오공은 공주로 변신하여 요괴를 맞는다. “여보, 저팔계라는 놈이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파~견딜 수가 없네요.”

“여보, 내가 그놈을 물리칠 테니 걱정말고...이거 내 내단(內丹)인데 가슴을 문지르면 아픈 게 나을거요.”

손오공 요괴의 내단을 받아 뱀꿈 삼키고는 정체를 드러내 싸움을 거는데 이 요괴 역시 비보통 요괴다. 손오공을 알아보는 눈치? 그러나 서로 통성명할 이유가 없지.

싸울 수 있는데 왜 말로 하겠어? 한바탕 경전동지의 싸움이 벌어진다. 요괴의 솜씨가 오묘하여 제법 상대가 되지만 손오공의 유인책에 걸려 여의봉 한방 얻어맞고는 픽~ 혼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손오공을 알아보는 눈치도 그렇고 지상의 요괴라면 자취가 남는 법인데 이리 자취가 없다면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정령이로다. 급히 천궁에 올라가 옥황상제께 아뢰어 하늘의 선관(仙官)을 점호해 보나...

“규성(奎星)이 하계(下界)로 내려왔습니다. 점호에 빠진지 13일째입니다. 하계의 시간으로는 13년이군요.”

그래서 별의 신령들이 규성을 잡아 올려 옥황상제 앞에 무릎 꿇린다. 규성이 사정을 아뢰다.

“보살국 공주는 본디 천상에서 향을 올리던 선녀였는데 저와 사사로운 정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계로 내려가 보살국 공주가 되고 저는 약속을 지켜 요괴가 되어 내려가 13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천대성 손오공을 만났으니 그 인연도 이제 다했나보군요.”

옥황상제 규성의 죄를 물어 벼슬을 강등시키고 손오공은 그런대로 일을 잘 마무리하여 기본 좋게 하계로 내려온다. 효랑이 되어있는 현장법사 원 모습으로 돌려놓고 그동안 섭섭했던 것 서로 풀어버리니 스승은 아버지와 같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다음 날까지 가는 원한 없다(父子無隔宿之仇)하지 않았는가?

다시 함께 뭉쳐 힘차게!!! 인도로 불경 가지러 가는 길로 나서네. 오직 애꿎은 인연놀음에 남편 잃고 아이들 잃은 보살국 공주의 애끓는 한숨만 이 궁전을 휘돌았다 하던가?

여러분, 이야기의 줄거리 읽어보시니 어때요? 앞에서 ‘요괴 쫓던 손오공 보살 쳐다보기’라는 말을 했는데, 이번엔 조금 경우가 달라졌네요. 요괴 잡아놓고 보니 하늘의 선관(仙官)이군요. 그것도 사랑 놀음에 얽혀 하계를 좀 어지럽힌, 괴짜까지는 하지만 무조건 미워하기는 힘든 선관이네요. 선관은 선관대로 하늘의 법규에 의해 처벌받고, 공주는 공주대로 자기가 초래한 업보를 감수하며 그냥 살아가는 길 밖에 없는 건가요? 예고, 그렇게 쿨하게 넘어가는 좀 그렇네요. 여기서 한번 전생의 업연 이야기, 그리고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괴로운 경우를 당하면 “전생에 업이 많아서...”하고 푸념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괴로운 상황에 있는 것을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닥친 일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다시 나쁜 업을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업이 계속 확대, 증폭 재생산 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악순환은 끊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당한 상황을 스스로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업이 동원되는 것이지요.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자신을 달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설득의 과정은 매우 필요하기도 하고, 또 효과도 좋습니다. 일단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니 더 나쁜 업을 짓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지만 삼매선생은 업을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업을 너무 소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업이라는 사고방식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현실을 합리화시키는데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업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미래의 훌륭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지요. 업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서 훌륭한 업을 지음으로써 훌륭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을 합리화하고,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적극적으로 훌륭한 업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부인이 계속 남편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지요. 그 부인이 남편의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그 분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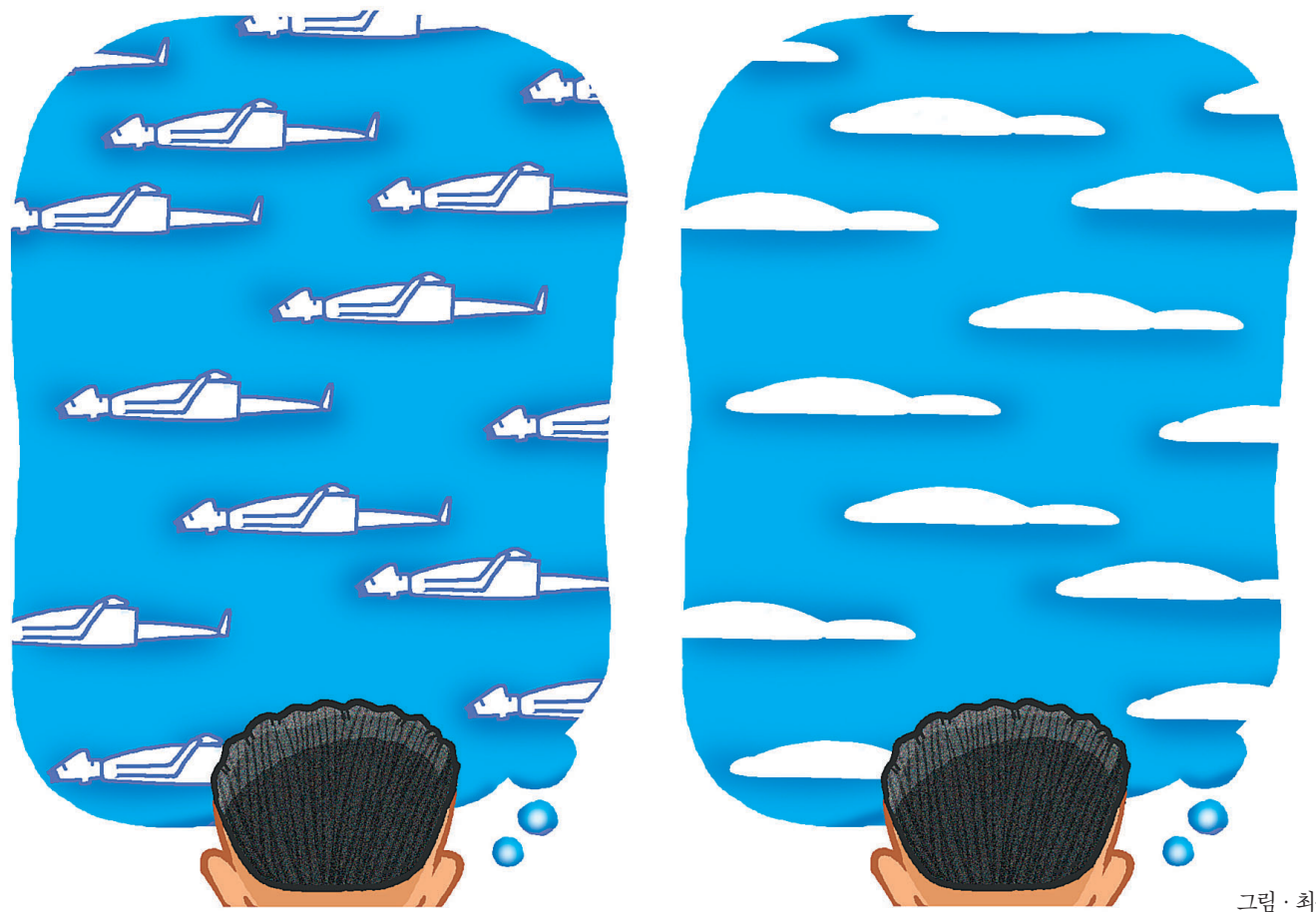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요괴 정체를 하늘 선관(仙官)

상계의 업으로 하계서 요괴돼

불교의 지혜가 업을 끊음을 상징

“전생의 업 타령 말고 선업 쌓아야”

자신을 맡김으로써 자신도 망가진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결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과거의 업보를 받는 것이야. 분노하지 말고 순순히 이를 받아들여야 과거의 업이 씻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요? 앞의 경우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이러한 태도가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참고 참다 보면 남편이 어느 날 마음을 바꾸고 합화하여 좋은 관계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성공한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참으로 전생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매선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어쨌든 과거의 업이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지요. 남편이 계속 그런 나쁜 업을 짓도록 해서는 안 되지요. 자신도 계속 수동적으로 폭력에 당하기만 하는 업을 계속 지어서는 안 되겠지요? 폭력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런 업을 방지하면 앞으로도 계속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남편을 설득

하고, 폭력을 방어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수단이 모두 안통하면 남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나쁜 업을 끊어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증오를 증폭시키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나쁜 짓을 계속하게 만들고, 그 나쁜 짓에 무기력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또한 나쁜 업이니까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루 빨리 이런 업을 청산하는 새로운 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지요.

“전생에 업이 많아서...”하는 업 타령은 적절한 선에서 그칩시다. 그리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 나가는 힘찬 삶을 일으킵시다. 이것이 삼매선생의 주장!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삼매선생이 제일 싫어하는 업 타령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간혹 전생의 업을 확연히 아는 듯이, “보살님은 전생에 무엇이었고 남편은 무엇이었었는데...그 때 보살님이 이리 저리 했던 과보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하는 식으로 전생의 이야기를 하시는 스님이나, 후도인 같은 분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또 위험하고, 또 사기성이 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정도가 되어서 삼명(三明) 육통(六通)이 환하게 열린 분이 아니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을 것 같구요. 혹시 그런 이야기 끝에 그런 업보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마짜리 기도를 드려야 한다든가, 어떤 액땀을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한다면 백발백중 사이비이거나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것을 알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삼매선생을 삼매도사로 분장시켜 하나의 무대를 꾸며 보

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앞의 가정폭력으로 해보지요.

〈짜가도사,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인에 대해 근엄한 표정으로 설교를 한다〉

짜가도사 : 흠, 내가 신통력으로 살펴보니 보살님 남편은 전생에 소였고, 보살님은 그 소의 주인이었던. 그런데 보살님이 좀 심하게 소를 다루었네. 몹시 혹독하게 부려먹고, 거기다 심심하면 채찍질을 해 대었구먼. 그래서 지금 그 과보를 당하는 거야!

마자보살 : 아이고, 그런 건가요? 그럼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가요?

짜가도사 : 흠... 업보를 다 받으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몇 년은 필요할 것 같아.

마자부인 : 아이고! 전 그러면 죽어요. 지금도 겨우 겨우 견디고 있는데, 도사님, 제발 저 살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전생도 환히 보시니 무슨 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짜가도사 : 흠, 흠, 흠... 아주 수가 없는 것은 아닌데... 나도 천기를 누설하는 일이고, 또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 좀 위험 부담이 있어. 그래서 좀 이래저래 비용이 좀 들 것 같은데... 감당이 되겠어?

마자보살 : 애고, 형편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끔찍한 시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해야지요...

〈이때 삼매선생, 삼매도사로 분장하고 혜성같이 등장한다.〉

삼매도사 : 잠깐 스톱! 짜가도사님, 저두 전생을 좀 보는데, 당신이 본 것과 내가 본에 완전히 다르네요. 누가 맞는지 모르겠군요.

〈짜가도사, 화들짝 놀란다〉

애고 지면이 다 되었군요. 짜가도사와 삼매도사의 대결...다음에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하지요.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PC컵 밀납양초 공장으로 장엄한 법당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실외 양초 공양집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이(SOY) 왁스 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mm x 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일본 직수입 향

심산자, 랜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